

2010년 아고라, 안녕한가

‘알바’ 비난전 가열... “자정기능 잃었다”

2008년 촛불시위 당시 누리꾼은 다음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토론공간 ‘아고라’를 주목했다.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을 가장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곳도, 거리의 촛불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도 아고라였다. 아고라에 모인 사람들은 촛불이 나아갈 방향을 토론했고, 토론은 다시 거리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촌철살인의 패러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차분한 반박을 볼 수 있는 곳도 아고라였다.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 시도를 비판한 미네르바가 일약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곳도 바로 아고라다. 그리고 2년. 아고라는 어떻게 됐을까. 2010년 아고라는 안녕한가.

미네르바가 떠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폰방. “사실 미네르바 사건 자체를 거의 몰랐다. 2009년 3월이었던가, 우연히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었다. 이걸 종교다. 종교적인 것은 들쭉치고 이상한 사이버 종교 광신도를 보는 듯했다.” 최근 이곳에서 ‘알바’로 공개 지목된 오륙구씨(가명)의 말이다. 오씨는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된 채 맹목적인 믿음을 표시한 글들이 아고라 토론방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판단능력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감성과 충동으로만 움직인다”고 항변했다.

미네르바 떠나고 알바 논란만 남아

오씨와 같은 이들이 비판 대상으로 하는 누리꾼은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다. 미네르바 체포 이후 아고라에서는 박대성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믿는 사람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박대성 가짜설’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다. 박씨 사건 전 “미네르바가 우리사회 극상류층 인사로 자신의 고교 동창 K’라고 주장했던 배 모씨(필명 readme), <신동아>에 미네르바 K를 소개한 담담담담 권오홍씨,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자 황대산씨(필명 makefile) 등이다. 이들은 각각 박씨가 가짜라고 보는 단서를 추적하는 글을 1년 가까이 연재하고 있다. 오씨는 반대편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비난하는 글을 최근까지 연재해 왔다. 황대산씨는 1월 초 오씨가 알바라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게시판 알바에 대한 논란은 오래됐다. 미네르바 논란에서 알바 논란의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자조적인 표현으로 ‘알밥’이라고 불렀다. 필명 ‘노뚝돌’을 사용하고 있는 김 모씨(36, 회사원)는 ‘미네르바 가짜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수많은 근거를 제시해도 그쪽 패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알바라고 매도당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나 조/중/동의 색깔 덧씌우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소위 ‘알바’ 내지는 ‘작전세력’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받아 왔다. 실제 아고라의 여러 토론방을 돌며 친정부 게시글로 중복 게재한 인사들 가운데 여러 명이 이 위원회의

'1기 멤버'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 조직명으로 직접 아고라에 글을 올리기가까지도 했던 디지털정당위원회의 최근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아고라에서 '철수'한 걸까.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은 "1기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소강상태"라고 말했다. 아직 2기 멤버는 뽑지 않았고, 2월께나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1기 멤버도 '누리꾼과 소통'이 목적이었고, 더욱이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Weekly 경향>은 815호에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발행하는 일일 '인터넷 보고서'를 내부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아고라의 동향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아직도 발행될까. 김위원장은 "아직도 발행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당원이라면 본인이 요청했을 때 다 받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미네르바 가짜설을 비판하다가 알바로 몰린 사람들이 처음부터 미네르바 가짜설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노릇돌' 김씨는 자신은 미네르바가 잡혀간 뒤 3월까지 미네르바 가짜설을 주장하는 readme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readme가 주장하는 소위 '0.01% 극상위층 K'가 밝혀지면 정권에 타격이 도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찾아서 읽다 보니 모순이 많았다."

한나라당 '일일동향 보고서' 아직 발행

그는 아고라 게시판을 벗어난 '알밥'들 사이의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알밥'이 중도에 합류한 것과 달리 '룰루비데'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모씨는 논쟁의 초기부터 미네르바 가짜설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는 미네르바 가짜설을 주장하는 readme를 다음과 비판했다. "전공상 글투에 예민한 편이다. 그런데 readme의 글은 아니었다. 인상만 나열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수사로 돌리는 비겁한 글쓰기를 했다. 그래서 글을 달았더니 readme는 '자신에게 태클을 걸었다. 한나라당의 알바를 공개한다'며 내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룰루비데는 '진보'에 대해서도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확실히 짝어서 말은 못하지만 내가 진보 쪽이라고 생각했다. 반이명박을 표방하는 진보는 이성적이고 어느 정도 사리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네르바 가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진보적인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알밥 가운데 자신의 입장이 보수라고 밝힌 사람은 없다. 룰루비데는 자신을 "20대 중/후반의 시험 공부를 하는 여학생"으로 소개해 달라고 했다. 실제로 과거 룰루비데는 반이명박 성향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여러차례 올려 놓았다.

미네르바 가짜설을 주장하는 담담당당 권씨를 만났다. 권씨는 '알밥'이 진짜 알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본인 입으로도 말하지 않았느냐. 올린 글도 토론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저질 글이고, 알바가 아니면 200여 개의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는 "알밥'이 필자들의 부모/친척 이름까지 거론하며 모욕했다고 말했다. 일부 공개된 IP를 근거로 "해외에 거주할 것"이라는 다른 누리꾼의 주장도 믿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찾아내서 실체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고라의 자정 기능에 대한 회의. 양쪽 모두 더 이상 아고라는 집단지성의 역할도 자정 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씨는 지능적인 작전세력과 권력과 교류하는 포털 다음의 적극적 방조 때문에, '알밥'쪽에서는 사이비교주 같은 비이성적 믿음과 맹목적인 추종 때문에 이미 아고라의 자정 기능은 상실했다고 각각 주장했다. 명예훼손이나 소위 전기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다음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이를테면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고, 위험한 수위의 욕설과 비방이 오가는 게시글이 있다면 다음 관리자가 개입했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아고라는 공론장 기능을 잃었다”

정지은 다음 홍보팀장은 “다음의 조치는 공개된 문서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공급업체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규정돼 있는 블라인드 또는 삭제 대상은 주민번호를 일부러 노출시켰거나 성기 노출 등 명백한 음란물 등에 한정한다. 초상권/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은 공개된 것에 대한 관련 권리 보유자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생활 침해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쪽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양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 오래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포털 다음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다. 다음은 지난 촛불정국 당시 사용자 비난 속에서 IP 일부 노출 정책 등을 도입했다. 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생활의 ‘일부’를 추정 가능한 정보가 소급 노출되면서 여러 분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일부 노출되던 IP가 최근 다시 사라졌다. 이번에는 사전 공지도 없었다. 정팀장은 “사생활 보호 가이드에 따라 아고라뿐만 아니라 포털 다음 전사적으로 적용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IP가 사라진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촛불정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아고라를 관찰/연구해 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고라는 “더 이상의 공론장 기능은 잃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고라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음모설이 횡행하지만 아고라는 넘어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퍼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신 교수의 진단. “(아고라는) 오프라인에서는 행동부대처럼 되고 온라인상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이며 동질적인 형태가 됐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 집단의 규모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공론장은 여전히 필요하다. ‘기동적인 집단지성’의 영역으로 아고라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신 교수는 “지난 촛불시위와 달라진 것은 훨씬 다양한 거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와 같은 모바일과 웹을 넘나드는 형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하위공동체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